

성적·흥행 모두 참패...KIA, 싸늘해진 팬심 녹이기 고심

선수 육성계획 부재·관리 실패에 외국인 선수들 성과도 최악 KT·키움전 맞춰 수도권 응원단 파견 등 분위기 살리기 나서

최고의 팬서비스는 최고의 경기다. 2021시즌 성적, 흥행 모두 참패 중인 KIA가 수도권 경기 응원단 파견으로 분위기 살리기에 나섰다. 지난 주말 잠실에서 LG 트윈스를 만났던 KIA 타이거즈는 22일부터는 KT위즈, 25일부터는 키움 히어로즈와 원정경기를 치른다. KIA는 수월하고 고척에서 한국 응원단장과 치어리더 4명으로 구성된 응원단을 파견해 팬들과 응원전을 펼칠 계획이다. 올 시즌 KIA는 하위권 싸움을 하면서 성적은 물

론 흥행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일 LG전 0-6 패로 올 시즌 성적은 24승 27패(승률 0.393)가 됐고, 마침내 단독 최하위까지 경험했다. 올 시즌 시작부터 KIA는 객관적인 전력 탓에 최하위 후보로 꼽혔다. 구단의 장기적인 육성 계획 부재와 관리 실패로 인한 젊은 선수층, 올 시즌에도 통 큰 외부 영입 없이 양현종이 해의 진출을 위해 떠나면서 전력 누수만 있었다.

그리고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윌리엄스 감독이 직접 체력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을 들였지만 올 시즌에도 부상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시즌 마무리를 담당했던 전상현이 어깨 부상으로 캠프를 치르지 못했고 시즌 중에는 나지완, 류지혁, 이창진, 최형우, 맹민, 브룩스, 박찬호 등이 재할군에 이름을 올렸다. 선수층이 얇아 보니 부상의 파급력은 더 크다. 외국인 선수들의 성과도 최악이다. 에리합이 떨어졌던 맹민과 브룩스는 설상가상 부상으로 로테이션도 채워주지 못하고 있고,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터커도 결국 21일 엔트리에서 말소되는 등 사상 초유의 외국인 선수 없는 팀이 꾸렸다. 벤치도 엔트리를 폭넓게 활용하지 못하면서 주축 선수들은 물론 백업 선수들이 각각 체력 관리와 감

유지라는 다른 '컨디션' 숙제를 안고 있다. 실력과 스타성을 모두 갖춘 '특급 신인' 이의리의 등장으로 그나마 흥행 호재가 생겼지만, 선배들이 성적으로 이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구단도 팬한 '의리의리합데이' 논란을 일으키는 등 악재가 겹쳤다. 올 시즌 KIA는 반대 여론에도 공보다 과거 훨씬 큰 조계현 단장과 재계약했다. '연속성'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팀 안팎으로 잡음만 나오는 등 팀은 연거푸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구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단의 근시안적·보여주기식 운영, 팀 성적과 비례해 관중석 분위기도 싸늘하다. 올 시즌 홈 31경기에 입장한 관중수는 5만8868명으로 평균 1898명에 그치고 있다. 3000명 이상이 입장한 경기는 4월 9일부터 진행

된 NC 다이노스와의 홈 개막 3연전(3869-4114-4264명)과 5월 19일 SSG전(3378명) 그리고 윤석민의 은퇴식이 열렸던 5월 30일 KT전(3179명) 등 4차례에 불과하다. 만원 관중은 채운 적이 없다. 성적과 더불어 그리고 날씨라는 악재가 겹쳐졌던 앞선 주중 SSG와의 세 경기(573-916-925명)의 총 입장관중은 2414명에 그쳤다. 팬들의 열기가 식으면서 방송가에서도 자연히 KIA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중계 방송사들의 '픽'으로 군림했던 KIA지만 올 시즌에는 상대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르다. KIA가 수도권팬들을 위해 마련한 응원단 파견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우선이다. 팬들을 관중석으로 부르는 최고의 방법은 좋은 경기력과 성적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여대 김민서·조선대 김정훈 우승 '명중'

회장기 양궁 혼성단체전

김민서(광주여대)와 김정훈(조선대)이 전국 양궁대회 대학부 혼성단체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광주대표로 출전한 김민서와 김정훈은 지난 21일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올림픽제패기념 제38회 회장기 전국 대학·실업, 시·대학 혼성단체전 결승에서 경기를 6-0으로 완파했다. 이들은 8강전에서 전남을 세트스코어 5-3으로, 4강에서 서울을 세트스코어 5-4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출전한 광주선수단은 남자일반부에 출전한 남규정 이승윤이 팀 창단 첫 금메달을 비롯해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수확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고, 2012 런던, 2016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광주시청)는 여

자일반부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승윤과 기보배는 시도대항 혼성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을 합작했다. 대학부에서는 '여대 최강' 광주여대가 에이스 안산의 부재에도 여자대학부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다. 60m와 혼성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민서는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정은 광주시양궁협회 전무이사는 "선수들의 의지와 투혼도 남다른 만큼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대통령기전국남여양궁대회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며 "남규정 남자양궁팀 창단으로 초·중·고·남녀대학·남녀실업팀 등 완벽한 연계육성 시스템을 구축한 광주양궁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내다봤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정훈(조선대·왼쪽)과 김민서(광주여대). <광주시 양궁협회 제공>

K리그2 전남 발로텔리·김다솔 '베스트 11'에

전남드래곤즈의 공격수 발로텔리와 수문장 김다솔이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2일 '하나원큐 K리그2 2021' 17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풀타임 활약 속 김영욱의 결승골을 도운 발로텔리와 함께 페널티킥을 막으며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한 김다솔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은 지난 20일 충남아산FC와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16분 기록된 김영욱의 프로데뷔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김영욱의 침투패스를 받은 발로텔리가 왼쪽 측면을 뚫은 뒤 문전에 있던 김영욱에게 공을 전달했다. 그리고 김영욱이 오른발로 골대를 뚫으면서 선제골과 발로텔리의 도움이 만들어졌다. 김다솔은 후반 18분 페널티킥 실점 위기에서 알

렉산드로의 킥을 막아내는 '슈퍼세이버'로 팀의 승리를 지켰다. 이와 함께 전남은 올 시즌 원정경기에서 4승 4무를 기록하며 '원정무패'를 이었다. 승리에도 1위 자리 수성은 실패했다. 전남과 1위 싸움 중인 FC안양이 부산아이파크와 9골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5-4 승리를 거두면서, 단독점에 밀려 2위가 됐다. 두 팀은 나란히 8승 5무 4패로 승점 29를 기록하고 있지만 안양이 23득점, 전남이 19득점에 성공했다. 수비에서는 전남이 17경기에서 단 12골만 내주며 최소실점 팀이다. 안양은 올 시즌 18골을 허용했다. 한편 멀티골로 안양의 승리를 이끈 조나탄이 17



발로텔리 김다솔

라운드 MVP에 선정됐다. 조나탄은 후반 1분 주현우가 올려준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 첫 골을 넣었다. 후반 19분에는 김경중의 크로스를 힐킥으로 마무리하며 멀티골에 성공했다. 9골이 터진 이 경기는 17라운드 베스트 매치에 선정됐고, 1위 탈환에 성공한 안양이 베스트 팀도 차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0-3→4-3... '헐크' 강동궁 PBA 대역전 우승

'헐크' 강동궁(41-SK렌터카)이 대역전 드라마를 쓰고 프로 당구 PBA 정상에 올랐다. 강동궁은 지난 21일 밤 경주 블루원리조트에서 열린 2021-2022시즌 PBA 개막전 '블루원리조트 PBA 챔피언십' 결승에서 스페인 출신의 대비드 사파타(블루원리조트)를 세트스코어 4-3(3-15 10-15 14-15 15-2 15-14 15-13 11-9)으로 눌렀다. 강동궁은 0-3으로 끌려가던 경기를 4-3으로 뒤집고 기적 같은 대역전극으로 개인 통산 두 번째 PBA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3세트까지 3-0으로 리드할 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사파타의 우승을 점쳤지만 4세트부터 강동궁이 기적 같은 드라마를 써 내려갔다.

4세트에서 강동궁은 에버리지 3.75를 기록하며 4이닝 만에 15-2로 따낸 데 이어 5세트서는 15-14, 1점 차 승리를 거뒀다. 6세트에서는 끈질긴 공격 끝에 15-13으로 마무리하며 기어코 승부를 7세트까지 끌고 갔다. 마지막 7세트도 초반 분위기는 사파타의 몫이었다. 사파타는 9-5로 리드, 우승까지 단 2점만을 남겼다. 하지만 공격 기회를 이어받은 강동궁이 절묘한 포지션 플레이를 앞세워 내리 6득점하며 11-9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우승 상금 1억원을 받은 강동궁은 "3세트에서 1점을 남기고 패배하면서 승부에 대한 개념보다는 앞에서 보여주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마



PBA 시즌 개막전 '블루원리조트 PBA 챔피언십' 결승에서 우승한 강동궁. /연합뉴스

음으로 임했다"며 "이후 팔도 가뭄이되면서 4세트부터 공도 잘 맞았다"고 대역전승의 비결을 밝혔다. /연합뉴스



2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로 2020 B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덴마크의 유수프 포울센(왼쪽)과 러시아의 피오도로 쿠드리아쇼프가 치열한 볼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덴마크 '에릭센 응원의 기적'

유로 2020 조별리그 최종전 러시아 4-1 꺾고 극적 16강행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첫 경기부터 핵심 미드필더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쓰러지는 악재를 겪은 덴마크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러시아를 완파하고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다. 덴마크는 22일(한국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파르센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로 2020 조별리그 B조 최종 3차전에서 러시아를 4-1로 꺾었다. 이 경기 전까지 승점 없이 B조 최하위에 머물러 탈락 위기에 몰렸던 덴마크는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대회 첫 승과 함께 B조 2위(승점 3)를 꿰차 16강에 올랐다. 2차전까지 B조에서는 벨기에가 2연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핀란드와 러시아가 승점 3으로 뒤를 잇고 있었다. 덴마크는 2연패로 최하위에 머물러 베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최종전에서 덴마크가 러시아를 잡고 핀란드는 벨기에에 0-2로 지면서 세 팀이 모두 승점 3으로 동률을 이루며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들 팀 간 상대 전적도 1승 1패로 모두 같아 상대 골 득실차까지 따진 결과 덴마크가 가장 높은 +2를 기록하며 극적으로 2위를 차지해 16강에 합류했고, 핀란드가 3위, 러시아가 최하위 4위가 됐

다. 덴마크는 13일 핀란드와의 1차전 때 전반전 도중 간판 미드필더 에릭센이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힘든 상황을 겪었다. 그라운드에서 심폐소생술까지 받은 에릭센이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90여 분 중단을 겪다가 재개된 1차전에서 덴마크는 핀란드에 0-1로 졌다. 18일 벨기에와의 2차전에서 1-2로 패해 덴마크는 16강에 진출하려면 최종전에서 다득점 승리는 물론 핀란드의 패배까지 따라줘야 하는 상황이였다. 심장 수술을 받고 19일 퇴원한 에릭센은 당장 복귀할 수는 없었으나 덴마크 대표팀 훈련장을 방문해 힘을 실었고, 동료들은 에릭센이 쓰러졌던 그 경기장에서 승리로 보답했다. 전반 38분 미켈 달스고르가 페널티 아크 쪽에서 때린 오른발 슈트가 뜻하며 기선을 제압한 덴마크는 후반 14분 유수프 포울센이 한 골을 더 보태 기세를 이어나갔다. 후반 25분 페널티킥으로 아르템 주바에게 만회골을 내줬지만, 덴마크는 후반 34분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 37분 요아킴 뮐레의 연속 골에 힘입어 대승을 완성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발신제한
2관	발신제한
3관	크루엘라
4관	킬러의 보디가드 2
5관	킬러의 보디가드 2
6관	콰이어트 플레이스 2
9관	발신제한, 콰이어트 플레이스 2
7관 씨네커풀	루카, 여고괴담 여섯번째 이야기: 모교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8관 씨네커풀	콰이어트 플레이스 2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메이드 인 루프탑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토니 윤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 06. 26.(토)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뮤지컬 <캐터필러의 유령>

일시 : 2021.07.10.(토)-11.(일) 19:30,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7

즐거움
문화산책